

금호산업·타이어, 올 워크아웃 졸업 '청신호'

산업, 자본잠식률 상반기중 50% 미만 하락할 듯 타이어, 작년 3분기 영업이익 2494억 정상화 가능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올 워크아웃 졸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위기로 몰았던 금호산업 자본잠식률 문제가 올 상반기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는데다 금호타이어는 영업이익이 증가 등 일단 '잠미빛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0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 등에 따르면 금호산업의 자본잠식률은 지난해 9월 62.7%를 기록, 상반기 88.6%에서 26%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금호산업이 지난해 주택사업 비중을 줄이고, 공공공사 등 고수익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지난해 1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한 덕분이다.
2012년 1648억원의 영업손실을 냈

던 금호산업은 지난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흑자 행진을 계속했다. 지난해 3분기에는 130억7600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둬 2012년 같은 분기보다 520%나 증가했다.
자본잠식률을 더 떨어뜨릴 여건도 충분하다.
현재의 잠식률은 금호산업이 지난해 11월 KoFC PEF(사모펀드) 지분을 매각하면서 받은 대금 1782억원 가운데 매각이 282억원 등 총 1290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잠수가 효과와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소송에서 돌려받은 546억원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기 때문. 재무

제표에 기재되면 자본잠식률은 50%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확실시된다.
실제 금호산업이 긍정 지표를 나타내자 주식시장에선 경영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 지난해 30일 금호산업은 코스피 시장에서 전일 대비 14.63% 오른 1만1750원을 기록했다.
채권단 측은 유입 자금과 출자전환 금액이 재무제표에 반영되고 금호산업의 영업실적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올 하반기 중엔 자본잠식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의 올 경영정상화 목표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만 2494억원에 달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세계 타이어시장 8위 규모의 일본 요코하마타이어와의 맺은 전략적 기술 제휴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영업실적 및 기업 경쟁력에서 개선이 커, 올 워크아웃 졸업이 가능해 보인다"며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경영정상화 의지와 노력이 채권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은 지난 30일 본점 16층 회의실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을 통한 경기진작 및 창조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은행 제공>

지역 제조업 보증료 지원 경기진작

광은,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지원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김장학)은 지난 30일 광주은행 본점 16층 회의실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을 통한 경기진작 및 창조경제 활성화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총 20억원을 특별출연하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이 재원을 바탕으로 광주 전남 지역의 제조업, 청년창업기업, 잠재수출기업, 공동구매기업, 창조형 서비스산업 등 지역의 경기진작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출금액 기준 총 1600억원 상당의 신규보증을 지역 중소기업에 제

공한다.
이와함께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 보증의 활성화를 위해 여신 전결권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거래실적 등에 따라 최고 0.5%까지 금리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이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 3년간 0.2%의 보증료를 우대하고, 90%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기업의 대출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은행이 직접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해 대출계약 등을 일괄로 처리하는 윈스톱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원·엔 환율 5년만에 1000원선 붕괴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

엔화 약세(엔저)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엔 환율이 5년여 만에 900원대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세로 출발했다.
지난 30일 원·엔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 개장 전 100엔당 1000원 선이 붕괴된 뒤 오전 9시 외환시장 개장 직후 100엔당 999.62원까지 하락했다.
엔화값이 1000원 선을 하향 돌파한 것은 2008년 9월 9일(장중 저가

996.68원) 이후 5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원·엔 환율은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하며 개장 직후 바로 1000원 선을 회복했지만 국제외환시장에서 엔화 약세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계속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원 오른 달러당 1055.0원에 개장했다. 지난해 30일 오전 9시30분 현재는 상승폭을 키워 전 거래일보다 1.7원 오른 달러당 1055.6원에 거래됐다.
월말·연말 수출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의 영향으로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고 있지만, 원·엔 재정환율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원·달러 환율도 1050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서 외환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이 강하게 작용 중이다.
전송지 삼성선물 연구원은 "연말 네고 물량 유입과 외환당국의 환율 관리 움직임의 영향으로 1050원대 중반에서 좁은 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환율 범위를 달러당 1050~1056원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청마의 해 신기한 말 크리스탈

청마의 해를 맞아 지난 30일 한 고객이 광주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생활매장에 선보인 말 관련 크리스탈 상품을 신기한 듯 살펴보고 있다. '피카리크리스탈' 브랜드의 이 제품은 개당 5만3000원에 팔리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파리바게뜨 일부 빵값 7.3% 인상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가 1월 15일부터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7.3% 인상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주요 제품을 보면 밀크플러스 우유 식빵 가격을 2600원에서 2800원으로 7.7%, 카스텔라를 1200원에서 1300원으로 8.3%, 블루베리쉬폰 케이크를 2만1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4.8%

광산업 광주 7.9% 오르고 전남 9.1% 감소

통계청, 11월 산업활동 동향

지난 11월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이 전년 같은달 보다 증가한 반면 전남은 감소했다.
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의 '2013년 11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광공업생산은 전년 같은달 보다 7.9%, 전월보다 1.5% 각각 증가했다.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자동차 (12.8%)와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통신 (21.3%), 금속가공 (22.2%) 등이 증가하고 전기장비 (-7.7%), 1차 금속 (-24.6%), 화학제품 (-27.1%) 등이 감소했다.
출하는 전년같은달 대비 9.6% 증

가하고 전달대비 0.6% 감소했으며 재고는 전년 같은달 대비 0.5% 증가, 전달대비 4.2% 감소했다.
대형소매점은 전년 같은달 대비 1.4% 감소, 전달대비 13.0% 증가했다. 전남 광공업생산은 전년 같은달 대비 9.1%, 전달대비 0.7% 각각 감소했다.
전년 같은달과 비교해 기타운송장비 (-54.9%)와 석유정제 (-4.5%), 고무 및 플라스틱 (-15.3%) 등이 감소한 반면 화학제품 (4.1%), 1차 금속 (2.8%), 비금속광물 (7.0%) 등이 감소했다.
대형소매점은 전년동월대비 3.7%, 전달대비 8.5% 각각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새 얼굴

“농업인에 실익주는 농협 만들것”

이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장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 구현과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농협을 만들기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취임한 이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은 “사랑받는 농협이 되기 위해서는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며 “소비자와 고객중심의 시스템 구축과 계통조직간 상호신뢰, 협조를 바탕으로 모든 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본부장은 “판매농협

구현과 일선 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정도 경영과 윤리경영을 통한 신뢰받는 농협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주 출신인 이 본부장은 송일고와 전남대를 졸업했다. 1987년 담양 군지부에 입사해 농협은행 첨단지점장, 농협중앙회 상호금융기획부 단장, 광주영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등록 대부업체 9000개 6년만에 반토막

금융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영업 환경 악화로 대부업체가 1만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올해에는 최고 이자율 인하마저 겹치면서 대부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음지로 스며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음성화를 막고자 내년 초부터 불법 사금융 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지난 12월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는 9000여 개로 지난해 말의 1만895개보다 1800여개 급감했다.
2007년 12월 말 1만8197개에 달한 등록 대부업체가 불과 6년 만에 반 토막 난 셈이다.
/연합뉴스

사랑이 가득한 2014년 새해 되세요

감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해를 보내며 지난 한해 보내주신 크나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복고당 한약방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